

‘협동조합 순창상회’ 공식 개소

순창군, ‘로컬푸드 플랫폼’ 지역 상생형 공동체 비즈니스로 경제 활력 기대

순창군의 농촌 활력 증진과 지속 가능한 창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 ‘협동조합 순창상회’가 공식 출범했다. 협동조합 순창상회(최기호 조합장)는 지난 21일 강천산 인근에서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행사에는 최영일 순창군수를 비롯해 순창군의회 의원, 지역 사회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출범을 축하했다.

‘협동조합 순창상회’는 순창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의 지원을 통해 2년간 교육·컨설팅·시제품 개발 등을 거쳐 역량을 다진 30여 개 액션 그룹(주민경제공동체)이 자발적으로 연대한 조직이다.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공동체 비즈니스 모델을 실현하고 있다.

순창상회는 강천산길 84에 ‘로컬푸드 순창상회’ 매장을 마련하고 지역



순창군의 농촌 활력 증진과 지속 가능한 창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 ‘협동조합 순창상회’가 공식 출범했다.

농가와 소상공인 등 30여 개 업체와 함께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매장은 순창의 장류, 농산물, 가공식품 등 지역을 대표하는 농특산물을 중심으로 구성돼 관광객과 소비자를 잇는 로컬푸드 유통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최기호 조합장은 “강천산 매장은 지역 소상공인들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공간”이라며 “관광객들이 순창의 맛과 품질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지역 농특산물 중심의 유통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왕일 기자

남원시가족센터, 한부모가족 자조모임 활동 마쳐

남원시가족센터는 서울 성주재단 여성지원프로그램 공모에 선정되며 400만원을 지원받아 진행한 한부모가족을 위한 자조모임 ‘내가 강사, 나눌요리 활동’을 마쳤다.

이번 프로그램은 온가족보듬사업의 일환으로, 4월 7일부터 10월 13일까지 7회기 동안 한부모가족 구성원들이 직접 요리 강사가 되어 잡채, 닭볶음탕 등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 총 43가정에 나누는 나눔활동으로 진행되었으며, 전국 재봉틀봉사자들이 기부한 주방용품과 성주재단의 후원으로 더욱 풍



성하게 운영되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부모가족들은 긍정적인 자아인식을 높이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감을 얻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운봉읍, 별별커피 달달시네마 성료

남원시 운봉읍은 서림공원 야외무대에서 ‘별별커피 달달시네마’〈소풍〉을 약 200여명의 읍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상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행사는 가을밤의 신선한 공기 속에서 지역 주민들이 함께 영화를 관람하며 휴식과 소풍의 시간을 나누기 위해 마련, 영화 상영 전에는 ‘추천면연리지 통기타팀(김재하 외 1인)’의 공연이 펼쳐졌다.

운봉읍은 관람객들에게 따뜻한 담요와, 차, 핫팩 그리고 운봉농협에서 쌀



소비 축진을 위해 만든 쌀과자가 무료로 제공해 포근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더해 주었다.

이번 행사는 남원시, 남원시관광협의회(박영태 회장), 리플러스사업단 주관으로 진행됐다. /남원=김기두 기자



서남환경, 햇 풀고구마 기탁

남원시 도동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1일, (유)서남환경(대표 서덕교)에서 고구마 30box(90만원 상당)의 신선한 ‘햇 풀고구마’를 취약계층을 위해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풀고구마는 통장들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등 군내 취약계층 25가정, 경로당 5개소에 지원될 계획이다.

서덕교 대표는 “지역사회의 관심과 사랑을 담아 1일 1가구 찾아가는 소풍행진’ 방문시 전달해 ‘따뜻한 겨울 나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도동동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에게 온정을 전하는 활발한 복지 나눔 활동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은 임실을 이도리 429-1번지 일원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여가 인프라 확충을 위해 새롭게 건립된 ‘임실군 생활체육관 피구·탁구장’ 준공식을 개최했다.

생활체육관 피구·탁구장 준공

임실군, 종합경기장 내 총사업비 59억원 투입 조성

임실군에 군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소풍의 장이 될 생활체육관 피구와 탁구장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군은 임실을 이도리 429-1번지 일원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여가 인프라 확충을 위해 새롭게 건립된 ‘임실군 생활체육관 피구·탁구장’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준공식은 심 민 군수를 비롯해 장종민 군의회 의장과 군의원, 박장규 도의원, 이재문 농협군지부장, 유관기 관장,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는 준공 결과보고와 테이프 커팅식, 기념 촬영 및 다과회가 진행되며, 준공을 축하했다.

임실군 생활체육관 피구·탁구장은 국비 13억 원, 도비 18억 원, 군비 28억 원 총 5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임실군 종합경기장 내 부지에 연면적 1,302㎡ 규모로 피구장 1면, 탁구장 8대 규모의 실내체육관과 샤워실, 탈의실, 사무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 시설은 지난 2024년 7월 공사를

시작, 올해 8월 공사를 마무리했으며, 피구와 탁구장 등 다양한 스포츠 시설을 갖추고 있어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한 여가 활동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실내 체육공간의 단열·흡음 성능 향상을 위한 고성능 마감재가 적용되어, 이용자의 쾌적성과 안전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임실에는 피구·탁구 전용 체육시설이 부족해 동호인과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체육활동을 하기 어려웠다.

이번 생활체육관 준공으로 군민 누구나 쾌적한 환경에서 피구와 탁구 등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게 됐다.

또한,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과 지역 주민은 물론 인근 지자체와의 연계 프로그램도 구상 중이다.

심 민 군수는 “이번 생활체육관 피구·탁구장은 군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건강을 가꾸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행복과 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의료원, 남원소방서와 합동소방훈련 실시

남원의료원은 지난 21일, 화재 사고에 대비하는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및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남원소방서와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자체종합훈련, 합동소방훈련을 진행, 자체 훈련에서는 남원의료원 지위소방대의 각자 임무 수행 절차를 숙지하고, 합동소방훈련은 남원소방서 및 유관기관의 신속대응체계와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목표로 했다.

이날 합동훈련은 본관동 지하층 식당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 발생을 가상으로 설정, 소방훈련 매뉴얼에 따라 남원의료원 오진규 원장의 총괄지휘를 통해 신속한 화재신고, 직원 및 환자 대피 유도, 중요 문서 반출, 자체 지위소방대의 초기 화재 진압 등의 순



련과 남원소방서가 출동해 실전과 같은 화재 진압과 대피훈련을 진행했다. 오진규 원장은 “가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다수인 병원의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실제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전처럼 훈련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 통

임실경찰서, 함께 찾아가는 고령자 교통안전 교육 실시

임실경찰서(서장 류관송)는 가을 농번기 및 햅쌀철을 맞아 야외활동 증가와 비례하여 고령자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유관기관 합동으로 함께 찾아가는 고령자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경찰청, 전북 자치경찰위원회,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교통문화연수원 총 5개 기관이 합동으로 고령자 운전 및 보행자의 경각심을 높여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고령자 교통안전 수칙 교육과 OX퀴즈, 골든벨과 같은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특히, 임실군의 경우 통계에 따르면 임실군 전체 인구 중 40%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인 초고령 지역인 만큼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고령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서로 양보하는 교통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관송 경찰서장은 “고령자 인구 비율이 높은 임실군의 안전한 고령자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경찰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 덕치면, 불법 광고물 철거 실시

덕치면이 2025 임실 방문의 해를 맞아 주요 관광지 및 시가지에 많은 관광객들의 방문이 예상됨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명절 이후 불법 광고물 철거 운동을 실시했다.

최근 불법 현수막이 덕치면 주요 관광지 주변을 비롯해 가로등, 가로수에도 무질서하게 게시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교통사고 유발, 보행자 안전 위협 등의 문제가 큰 상황이었다.

면은 도로변에 위치한 선거 및 명절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여 덕치면의 청결한 지역 이미지를 제고를 위하여 힘썼다.

이현준 덕치면장은 “불법 광고물 철거로 광고물 관리가 취약한 도로변을 깔끔히 정비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엔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학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